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천국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수치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도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천국으로 가득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복음의
세계 속에 하나로 녹아들어
한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머물기를
힘씁니다.

어느 아침의 감사

신윤식

아침 창가에 서서
비온 뒤 해맑은 하늘을 보며
숨을 들이쉬니
가슴이 시원해진다.

바람타고 흐르는
꽃 같은 구름 몇 점
눈에 가두어 두고
빗물 머금어 반짝이는 산을 보며
숨을 들이쉬니
어느새 한 폭의 그림 되어
마음 한 가운데 자리 한다.

다시금 구름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 쉬니
어느새 한가로이
구름 뒤를 따르며 생각에 잠기고
나도 구름 되어 자유자가 된다.

다시 숨을 내쉬며
밖의 모든 것을 들어 놓으니
산과 하늘과 바람과 구름을
있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와 기쁨의 강물 되어
마음속 굽이쳐 흐르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음에
오늘도 살게 하심에 감사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7.24

발행호수 제19권 30호

자기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만일 자신들이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헛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 같으면 하지 않는다' '나 같으면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큰소리쳤던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사랑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의 자신감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이 자신감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이고 또 그럴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의 말씀이나 자신이 했던 장담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기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순간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선택할 자신감으로 넘친다고 해도 그 자신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말한 대로 인간은 자기 사랑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사랑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같으면' 라는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자들이며 오히려 '나도 저렇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른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은 자신을 돋보이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즐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로 부

주일오전설교
마 23:37-39

원하지 않음

각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가치 향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자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면서 겉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을 통해서 존경 받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 말로 자기 사랑이라는 욕망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한들 안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복 있는 자 앞에 세워보면 어떨까요? 복 있는 자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물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부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자,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치 있는 자 되는 것에 주리고 목마른 자, 용납하기보다는 판단과 비판을 일삼는 자, 그럼에도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 이웃을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삼는 자, 자신에게 불리한 길은 피해 버리는 자,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복 있는 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자신이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자' 라고 한다면 그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무지한 자의 헛된 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복 있는 자는 윤리와 도덕으로 탄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아주 정직한 실상인데 그 또한 우리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수님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심으로써 되어 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가난한 것이고, 애통함이 있는 것이고, 의 주리고 목마르게 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을 원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헛된 자신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서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원하는 것은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보다 육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육신에 저서 육신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를 모으려 하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고 거절한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쳤던 조상들의 죄의 속성을 그들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일뿐입니다. 자기 사랑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내게 유리하고 세상에서 좀 더 잘되는 길을 추구할 뿐입니다. 나의 꿈과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거절하고 대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보다는 돈을 더 원하고, 말씀의 세계를 살기보다는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세계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탄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결국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황폐하여 버림받은 것 같은 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항상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 또한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할 때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황폐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육신이 부하다고 해도 그 마음은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고 오셨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들고 오시고 권력과 명예를 들고 오셨다면 세상은 쌍수를 들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은 피로 인한 죄의 용서입니다. 죄 속에 있는 인간의 구출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다.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죄 문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 생활로 충분히 해결된다고 여겼습니다. 즉 자신의 의와 착함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모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누구든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한 자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백성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방법은 죄에 대한 선포와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모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

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만들어 낸 우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을 원하기보다는 세상을 원하며 살아가는 자기 사랑으로 뭉쳐진 인간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자기 인생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만을 원하며 살아가는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처럼 자기에 대한 한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으로 산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채우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감사함이 없는 황폐한 심령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죄에 대한 탄식이 있을 때, 그리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할 때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만 여겼지만 죄를 생각하고 깊은 탄식과 한탄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저주에 갇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들을 원하게 되고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들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는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말을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몰랐던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세력에 붙들려 끌려가는 현실을 보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을 내려놓는 것이 됩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발자국도 믿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없는 나약한 자로 주님께 나오시고 말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 현대 교회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배당을 교회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교회로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배당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언행도 조심해야 하고 옷차림도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의 관심을 예배당에 두게 하고,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끌여가는 것은 목사의 욕심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은 목사에게는 자신의 목회 능력과 성공의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의 크기가 목사의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명예와 능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예배당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예배당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단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룩성을 부여하여 예배당에서의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당위성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통한 자기 자리 확보라는 자기 목표를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것은 버리고 유리한 것을 취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배당을 그냥 건물로서의 예배당으로 말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각시킬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 보다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교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를 물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 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이라고 할 때 무너지는 것은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주일오우설교
엡 2:19-22

교회는

(교회1강 7.3일 설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람, 즉 신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옆에 사람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교회이고, 나보다 못해서 무시했던 그 사람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을 단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감정을 가지고 대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가 곧 교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로 일컬음 받는 신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서로 거룩한 존재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 주어진 거룩한 신분은 예수님의 피의 의로 인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관계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면 되지 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 이유는 20-2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는데,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개인이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감으

로써 교회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여러분을 서로 연결하여 지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처소를 자신의 처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를 회복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들의 터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러한 신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려앉아있는 신자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뜻이고 목표입니다. 이 뜻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할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를 얻는다고 해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에 죄의 해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심

판이 인생의 결국에 해당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 받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처소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살길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가 교회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관계로 부름 받았습니 다. 한 개인을 부르시고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된 자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누구도 온전한 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연결하시는 건물은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더 낫다는 우월 의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서로에 대해 이러한 시각이 있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피조물인 신자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뜻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

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4절)고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이스라엘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바라보며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이스라엘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2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의 복을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데 2절 뒤에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없고 따라서 영원히 저주에 갇힐 수밖에 없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스스로의 힘으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의 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거룩한 피가 그들의 생명이 되는 관계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물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자신의 실상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 같은 자가 아무리 복을 빈다고 해도 주

수요일설교

말 2:1-9

생명과
평강의 언약
(3장 6.29일 설교)

어지는 것은 저주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실감하게 되는 것은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저주에 갇힌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저주에 갇힌 자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알고 언약을 믿는 신자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자질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세계만 굳게 세우려고 할 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주가 당연하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고생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저주에 갇힌 자에게는 분명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육신의 삶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저주에 갇힌 실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힘든 삶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라는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안에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한 대로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생명도 평강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도 보지 못합니다. 단지 삶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생각만 굳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편안함을 원합니다. 사실 편안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바람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안한 삶도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도 잠시 후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오늘의 일일 수도 있고 내일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인간은 영원한 저주의 세계, 고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겠지만 신자는 말씀 안에서 저주의 세계를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둔 신자에게 참된 복은 생명입니다. 저주에 구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희생의 제물을 말합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모른 자가 바치는 희생의 제물은 냄새나는 똥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바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신 것을 받을 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치는 것을 신앙으로 강조하는 현대 교회는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안에서 교인들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바치는 경쟁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존귀한 것을 받았습니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귀한 복의 세계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처했던 자리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6장
교 독 : 86(계14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46장
성 경 : 마 23:37-39
말 씀 : 원하지 않음(14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31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54장
기 도 : 김현동 집사
찬 송 : 446장
성 경 : 롬 1:14-15
말 씀 : 교회와 복음(교회 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05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말라기 강해(7강)

■ 교회소식 ■

1. 은석교회 수련회 안내
일시 : 8월 5-7일
장소 : 문경 펜션(문경 오미자촌)
*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확인하시고 참석자는 각 구역의 장로님께 신청바라며 수련회 참석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8월까지 성경공부는 쉽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김옥자 집사

신자로 사는 인생 ①

인간은 부단히 의미를 묻고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적은 일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일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희생까지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미 없는 일은 가치 없는 일로 이해되기도 한다. 가치 없는 일에 매진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가치 없는, 즉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은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아무 보람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일의 가치와 의미를 따져가면서 자신이 부각되고 또 보람이 되는 일인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행위에서 의미를 찾고 행동한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행위에는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 전체, 다시 말해서 산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수해를 당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보내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금을 보내고서 마음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기쁨으로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말한 대로 그것은 인생에서 극히 미약한 한 부분의 일일 뿐이다. 성금을 보낸 일 하나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일 하나가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나는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도 한다.

의미를 묻는다는 것은 목적과 이유를 묻는다는 것이고, 목적과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가치와 보람을 추구한다는 것이 된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이러한 목적과 이유는 분명히 있다. 밥을 먹는 일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는 일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지만 사람이 평상시에 의미를 생각하며 밥을 먹고 의미를 생각하며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당연한 삶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 장성하여 직장을 얻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유도 목적이지만 말한 대로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새삼스레 의미와 이유를 물으면서 밥을 먹고 학교가고 직장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한 일들에 대해 갑자기 허망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을 가끔 만날 수 있다.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의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